

「아시아-태평양 잡초학회」



'89. 8. 21-26,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4百명 참가 예상, 잡초방제 중요성 인식

잡초 방제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12차 아시아-태평양 잡초학회 (APWSS)」가 오는 8월 21일부터 6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 지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잡초방제의 현안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폭넓은 발표와 토론을 갖게될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세계의 잡초방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나아가 잡초학 분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보며 잡초분야에 관심있는 많은 독자들과 함께 그 현장을 미리 가본다. <편집자 주>

● APWSS 서울유치의 배경

'87 폐막식서 서울개최 공식선언

아시아-태평양 잡초학회(APWS-S : Asian-Pacific Weed Science Society) 는 이 지역에서 잡초학 (또는 잡초방제학) 을 전공하는 전문가 몇분이(예 : Romanosky, Moomaw, V-gea, Plucknett 박사) 이 모여서 학회의 설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1967년 미국 하와이에서 제1차 APWS-S 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 본학회의 발족동기가 된다. 그리고 이들은 매 2년마다 이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주최토록 하여 지난 22년 동안에 11차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며, 그동안 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학회가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대개 한 차례씩 APWSS 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85년 태국 「창마이」 市에서 제10차 APWSS 개최시에 제 12 차 개최국 선정을 위한 상임이사회에서 한국 개최가 공식 거론되었다. 한국 잡초 학회 회장으로 본 이사회에 참석한 안수봉박사께서 서울 유치를 긍정적으로 합의하고 귀국후 한국잡초학회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서울 개최를 우리나라 쪽에서 정식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1차 APWSS 개최 때는 그 당시 한국잡초학회장인 김동수박사가 자동적으로 부회장으로 역임하게 되었다. 11차 대회외 폐막식에서 제12차 APWSS 회장 자격으로 김동수 한국잡초학회장(부재로,

(아시아-태평양 잡초학회 개최현황)

제 1 차	APWSS ('67)	미국, 하와이
제 2 차	APWSS ('69)	필리핀, 마닐라
제 3 차	APWSS ('71)	뉴질랜드, 워싱턴
제 4 차	APWSS ('73)	말레시아, 쿠아라룸프
제 5 차	APWSS ('75)	일본, 동경
제 6 차	APWSS ('7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제 7 차	APWSS ('79)	호주, 시드니
제 8 차	APWSS ('81)	인도, 뱅갈로르
제 9 차	APWSS ('83)	필리핀, 마닐라
제 10 차	APWSS ('85)	태국, 창마이
제 11 차	APWSS ('87)	자유중국, 대북
제 12 차	APWSS ('89)	한국, 서울

김길웅 교수가 대리)이 서울 개최를 공식 선언하고 한국에서 '89년에 만날 것을 약속함으로써 전세계에 알려진 것이 서울 유치의 배경이 된다.

● 서울 유치의 의의

농작물 생산성 향상은 (1) 품종 개량 (2) 재배방법 개선 및 (3) 작물보호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할 때 잡초방제는 재배법과 작물보호 등의 양쪽에 관여되는 필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잡초분야발전의 좋은계기될 듯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잡초방제의 중요성이나 인식의 정도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하여 농촌노동력의 부족이나 노임의 상승등으로 인하여 손으로 잡초를 방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잡초방제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세계 농약시장의 44%정도를 제초제가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제 12차 아시아-태평양 잡초학회를 서울에 유치,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는 일로 생각된다. 특히 서울대회를 통하여 잡초방제의 중요성, 잡초방제법 확립, 제초제의 개발, 제

초제의 특성, 작용기작 및 대사, 환경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이 지역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잡초방제의 문제점 돌출 및 해결책 제시 등 폭넓은 발표와 토론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이 분야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는 전환점으로 생각된다.

● 추진경위와 진행상황

한국잡초학회의 설립 해수로 보나 전문가의 수적인 면으로 보나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종전에 불과 2~3인의 전문가가 참석해왔던 것과는 달리 지난번 제11차 대만 A-PWSS에는 대학 및 업계, 관계 등에서 무려 33인이 참석함으로써 한국잡초학회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에 만전

제11차 APWSS참석을 통하여 첫째로, 우리의 국력이 크게 신장했다는 점과 둘째로, 잡초방제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는 점 셋째로, 잡초방제의 전문가나 관심을 가진 저변 인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느낄 수가 있었다.

또 서울대회 유치와 추진을 보다 밝게 해준 것은 제11차 APWSS에

참석한 한국인 전원이, 이구동성으로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적어도 대만 보다는 잘 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빼 놓을 수 없다.

'88년 초에 김동수 회장 주관으로 제11차 APWSS 대회 참석소감을 나누는 토론회를 갖고 제12차 APWSS 서울개최에 따른 추진매체를 구성하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서울대회의 추진을 위하여 크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동수, 부위원장: 신용화) 와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동우, 부위원장: 박석홍) 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는 다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계·관계·업계에서 잡초방제 또는 재초제 관련 전문가를 모

두 참여토록 하였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서울대회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한국잡초학회 및 회원, 조직위원회, 추진실무 소위원회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농약공업협회, 국내 제조회사, 원제회사 및 국공립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생각된다.

● 주요행사

제12차 APWSS 서울 대회는 1989년 8월 21-26일 서울 강남구역 삼동 676번지의「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다. 잡초 및 잡초방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

'89년	8월	20일	14:00-18:00	등록
			19:00-21:00	상임이사회 (APWSS)
8월	21일		09:00-10:00	등록
			10:00-11:00	개회식
			11:00-15:00	기조논문 발표
			15:00-18:00	논문발표
8월	22일		19:00-21:00	환영연
			09:00-12:00	논문발표
8월	23일		13:00-18:00	논문발표
			09:00-18:00	현장 및 유적지 방문
8월	24일		09:00-12:00	논문발표
			13:00-18:00	논문발표
8월	25일		09:00-15:00	심포지움
			13:00-18:00	지역별 잡초방제 현황 발표
			19:00-21:00	환송연, 최우수논문상 수여
8월	26일		출발 및 여행	

든지 참석토록 초청하는 바이다.

● 이번 대회 특징

제12차 APWSS 서울대회의 특징은 학술논문 발표에 덧붙여 (1) 기초 논문발표, (2) 심포지움 개최(주제: 경제적 잡초방제, 7~10명의 세계 저명 전문가 초청) (3) 국가별 잡초 및 잡초방제 현황 발표회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학술대회를 통하여 세계의 잡초방제 현황과 이 지역의 현황, 나아가 국가별 잡초방제 현황 및 문제점을 접해보며 앞으로 연구자의 국제간 협력, 공공 연구사업 추진, 국가간 협력, 이 분야의 훈련 나아가 제초제의 시장성등을 가늠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논문발표 분야와 접수현황

발표분야는 위와같이 크게 구분되며 이 가운데 작물별 잡초방제법 연구, 잡초의 생리 생태, 신규 제초제의 제 특성에 관한 논문 수가 비교적 많다.

현재까지 요약문은 160여건을 상회하고 본문전체가 접수된 것만도 70여건을 넘었다. 외국인 등록자 수도 6월23일까지 230명 정도이며 대회 당일(8월21~26일) 등록자 수를 포

1. 논문 발표 건수(예정) :

140~160건

2. 발표분야

- (1). 잡초의 생리·생태 연구
- (2). 작물과 잡초간의 경합연구
- (3). 작물별 잡초방제법
- (4). 신규 제초제의 특성
- (5). 제초제의 작용기작 및 대사
- (6). 제초제의 내성연구
- (7). 잡초의 상호대립 억제작용

합하면 아마 외국인이 300명, 내국인이 100명이상 참여하여 명실공히 국제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대되는 효과

이번 제12차 아시아-태평양잡초학회를 통하여 1) 세계 및 이 지역의 잡초방제 현황과 문제점 파악 2) 경제적인 잡초 방제법 제시 3) 제초제의 시장성 파악 4) 국제간 잡초방제의 교육 연구 및 훈련에 협력 강화 5) 야생 식물(잡초)의 이용성 증대 6) 잡초방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재고와 농민에게 값싸고 안전한 제초제 공급을 위한 계기 마련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 : 김길웅 교수(경북대학교 농과대학)

APWSS 추진위원회 총무간사